



▲월주 총무원장선거에서는 11일 개혁종헌수호 정신 대법회...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총무원 청사 2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아집 버리고 청정승가 거듭나라” “혼탁한 종단현실 共業...부끄러울뿐”

PC통신에 올라온 불자들의 분노...한숨...당부

11일 조계사 총무원을 사이에 놓고 벌어진 스님들 간의 폭력을 지켜본 사회대중들은 총무원측이든 정화개혁회의측이든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게시판 등을 통해 불자들은 분노와 한숨을 그대로 토로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코베디' '전쟁터'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한 스님은 '죄송할 따름'이라며 오늘의 종단 모습을 한탄했다. 또 한 스님은 승단화합안이라는 장문의 글을 싣기도 했다. '다짐을 버리고 청정승가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는 바람도 있다. 불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4년전 개혁을 외치던 스님들이 오늘의 그들인데, 종단의 민주화와 올바른 승풍의 진작을 외치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만과 아

집을 버려야한 청정승가에서 어찌 이런 악습이 되풀이되는지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울(PSH0121)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이 모든 혼탁과 비방은 출가와 재가를 앞세울 필요없이 우리 모두의 공업 아닙니까? 부끄럽고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총지(BANGHA)
○...저들이 저런다고 실망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자. 부처님의 제자행세를 하며 불교를 해하는 무리가 저들이 아닌가. 이제 남은 것은 저들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법의를 물수해야 한다. 최윤규(CHOI1214)

○...수치를 아는 이가 그리울 뿐입니다. 법리해석이나, 소급적용이나 모두 말장난일뿐. 경과 율으로써 출가자를 평가하십시오. 부합치 않으면 따르지 마세요. 금강경에서 "이 혼탁한 종단에 기대를 구하지 말고, 오로지 삼장의 가치를 현실화해 구해야 한다" 했지 않았습니까. 원창(DAMMA)
○...악행을 했다고 한들 불법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오늘 조계사에서 확인한 진실이다. 그러나 불법의 맥은 살

아있다. 원로 큰스님들이 올바르게 판단해 정법을 밝혀 주시옵소서.

조영훈(생명이)
○... '자명등 범명등' '귀의승가'의 원칙으로 승단을 이끈 부처님을 본받아야 할 때다. 각자 진리를 찾아서 법답게 사는 '자명등 범명등'은 수행의 원리이고, 승단과 선지식을 좇는 '귀의승가'는 불교 운용의 원리이다. 이선화(LEE1499)

○...조계종이 없어져도 그리 상관이 바 아니다. 청정하게 수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민경석(디키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모든 공부 멎것이다. 속세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출가한 스님들이 무엇이 아쉬워 다시 쓰잘데기없는 직책에 집착하는지 안타깝다. 권희순(khs1515)

○...권력을 차지하려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폭력조치를 거느리고 영물은 뒷전인데 이권에 눈멀어 주먹다짐으로 불법을 왜곡하고 있으니 큰일은 큰일이다. 전병택(금화종지)
○...차라리 뜨거운 불판에 앉더라도 자기 분에 맞지 않는 직책을 삼가는 그런 스님을 뽑고 싶다. 송형근(adamant0)

종회 선출→종정임명→경선 '변화'

역대 총무원장선거 어떻게 치렀나

66년부터 문중간 주도권 다툼

1962년 제정된 조계종 최초 종정은 총무원장을 중앙종회에서 선출해 종정이 임명토록 했다. 종정이 종단직인 및 주지임면권, 재산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종정의 권한이 더 컸다. 총무원장은 종정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물렀다. 이때부터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없었다. 본산 주지 등으로 구성된 50명의 중앙종회에서 초대 종정에 효봉스님, 초대 총무원장에 임익진스님을 선임했다.

70년대초까지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였지만 조정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추대의 형식이었으며, 이같은 관행은 73년 서용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임명제로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60년대 중반부터 조계종은 종정 및 총무원장 선출을 놓고 종단의 주도권 잡약을 위해 사찰 또는 문중별로 인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효봉스님 임직(66. 4~67. 7. 경산스님 추대과정에서 과벌의식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2대 종정 청담스님과 당시 총무원장 경산스님(재임 66. 4~67. 7. 경산스님은 73. 1~75. 9에 총무원장을 역임했다)과의 불화가 표출됐으며, 결국 청담스님과 경산스님이 모두 사퇴했

다. 내분으로 종단지도부가 시뒤틀리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이때부터 종정과 총무원장간의 권한 문제로 분쟁이 본격화했으며, 경산스님에 이어 67년 7월 총무원장에 취임한 영암스님, 월산스님도 임기 도중에 물러났다. 69년 1월, 금기야는 청담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아 종권을 행사한다.

서용스님과 고암스님이 종정을 역임한 시기(73. 8~81. 1)는 종단분규가 계속되었으나,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해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없었다. 이때의 총무원장은 서암스님, 영암스님, 영해스님, 자운스님, 혜정스님, 석주스님이었다.(10대~15대)

80년 10·27 법난으로 기능이 정지된 조계종은 정화종총회의를 구성해 총무원장을 이어갔으며, 탄성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으며, 다시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은 10·27 법난 이후 들어서 정화종총회의 때부터다. 종총회의는 81년 1월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고 종정의 입지를 10년으로 하는 등 종단운영의 새 틀을 짰다. 또 6대 종정에 성철스님을 추대하고, 18대 총무원장에 성수스님

을 선출했다.

84년 해인사 승려대회에서는 녹원스님을 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86년까지 총무원장을 종회에서 선출했지만, 경선의 방법이 아니고 이때도 사실상 추대하는 형식이었다.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그대로였으나 경선이 이뤄지기는 90년 26대 총무원장 선출 때가 처음이었으며, 지금까지 경선하고 있다. 이때 의현스님과 월탄스님이 출마했으며, 이 선거에서 의현스님이 당선됐다.

의현스님은 통합종단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마쳤으며, 연임한 첫 총무원장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2정은 아니었다. 의현스님 반대측 스님들은 9월 통도사에서 승려대회를 열어 벽암스님을 총무원장에 추대했다. 이로써 또다시 강북·강남의 총무원 체제로 갈라졌다. 90년대 나타난 강북·강남 총무원 체제는 서로 자기 문중의 여론을 종정으로 추대하려는 의중에서 나타난 갈등이었다.

94년 3월 의현스님은 총무원장 3선에 나섰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4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고, 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11월 21일 종회는 총무원장에 월주스님을 28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때 월주스님과 월탄스님이 총무원장 후보로 출마했다. 근소한 표 차로 월주스님이 당선되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hia.com)

언론 조계종사태 보도경쟁

'3백여명 난투' '폭력으로 얼룩진 불심' 등 표현

11일 승려대회와 정화개혁회의 출범 후인 12일 일간신문에는 일제히 '조계종 또 폭력사태' '3백여명 난투' '폭력으로 얼룩진 불심' 등의 제목을 달아 사건과 함께 사회면의 머리엔 올랐다. 또 사실을 통해서 "사회의 정신적 교사로써 참 종교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무력충돌 위기'로 치닫는 조계종사태 등의 해설기사를 띄웠다. 경향신문도 9일 기사메모를 통해 성철스님 5주기를 맞는 시점에서 벌어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열 양상을 보도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 뉴스에서도 11일 승려대회와 총무원장 선거 폭력충돌 등을 생생한 현장 모습과 함께 비중있게 다뤘으며, 12일 총무원장 선거 무산과 각 후보진영의 동향, 총무원 주변 모습을 신속히 보도하는 등 이번 사건을 집중보도했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hia.com)

대인불교 조계종 제 10교구 은애사 제주 극락도량 藥泉寺

종단등록 기념 대법회 및 주지 진산식

(수룩영가 천도재 및 방생)

초대의 글

귀의 삼보 하옵고
평소에 변함없는 마음과 정성으로 약천사를 아끼주시고 키워주신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옵니다.
저희 약천사는 대웅전과 나한전이 완공되어 행정당으로부터 지난 10월 9일 준공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삼보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보존되도록 조계종단에 등록하게 되었으니 이 기쁨과 보람을 모든 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하여 존경하는 스승님인 신도대중사님을 모시고 傳法度生の 수룩천도·방생 대법회를 봉행하면서 아울러 주지 진산식을 갖게 되었사오니 함께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기를 바랍니다.
南無佛! 南無法! 南無僧!

극락도량 약천사 회주 해인 합장

행사 일정

· 11월 25일(음 7일) 수요일 오후

- 5시 40분 - 법고 및 범종 타종
- 6시 - 저녁 예불
- 6시 30분 - 법문/은혜사 주지 법탁스님
- 9시 - 수룩영가 천도재/해인스님 영가법문
- 영가 위로 바라치사위/무형문화재 50호 송암스님 제자스님 일동
- 11시 - 철야 기도

· 11월 26일(음 8일) 목요일 오전

- 4시 - 새벽예불
- 5시 - 법문 - 혜국스님
- 8시 - 방생 법회/약천사 앞 바다
- 10시 - 주지 이·취임식
- 분향/축가-서귀포 연꽃 합창단
- 축사/격려사
- 법어 - 일타 큰스님
- 취임사 - 신임주지 性空 스님
- 12시 30분 - 사시공양

▶ 일시: 1998년 11월 25일(수)-26일(목)
(음력)1998년 10월 7일-8일(약사재일)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1165 약천사
전화 : 064)738-5000(대)
팩스 : 064)738-5022 주지 합장

▶ 법회에 동참하실 불자 문의 접수처

- 서울 반야 여행사 02)730-0020(나인성과장,정재학)
- 대구 불교 방송국 053)427-5114
- 부산 우진 여행사 051)468-7447
- 전주 우진 여행사 0591)759-6400
- 제주도 대자연 관광 064)721-0005(제주도내 교통편 문의처)
- 제주도 서귀포 중앙 항공 064)732-3288(항공권 할인 구입)

▶ 약천사 오는 방법

▷제주도에서
대중교통이용 -종문에서 서귀포로 가는 길에 종문상고 앞에서 하차
종문상고 -익전시(500m)

▷육지에서
예약 -형식에 통장해당고지 하시는 신도님들은 협약업체에 문의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1 대자연 관광버스 이용 -공공대기 대자연 관광버스(익전시 직통(1시간 소요)
2 공항버스이용 -공공대기(리무진)이용 -종문 관광단지 하이마트 호텔에서 하차
·공항에서 하이마트까지 ·50분 소요 ·하이마트에서 익전시까지 ·택시 10분